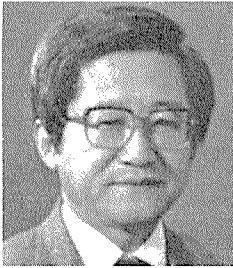


## ● 振興컬럼

한 발 다가온  
FAX 時代

金 貞 欽  
高麗大 教授 / 理博

## 팩시밀리 複數使用의 時代가 왔다는데도

팩시(Fax)의 時代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도 안타깝게도 複數의 팩시를 갖는 企業體나 機關은 드물다. 예컨대 名脚을 交換할 때 筆者는 제일 먼저 팩시밀리(Facsimile, 略해서 Fax)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핀다. Fax가 없는 會社나 機關이라면 일단은 無視해도 좋으니 말이다. 이 情報化時代에 팩시 한 대 없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아가겠는가 말이다.

다음으로 筆者는 팩시가 몇 대인가 또는 적혀 있는 그 Fax번호가 직통인가 아닌가를 묻는다. 그런즉 대부분 사람이 의아스러운 눈으로 쳐다 본다. 아니 팩시란 한 대만 있으면 되었지 여러 개는 왜 필요한가 하는 式의 눈초리이다. 그럴 때마다 筆者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항상 情報化 社會의 到來를 떠들어대고 또 남보다 앞서 Fax도 사고, 코드리스 폰(cordless phone)도 사고,

靜止畫面 TV電話도 設置하고, 不在中 應答 및 錄音電話機도(두대씩이나) 놓아두고, 三人通話나 通話中대기 서비스 등도 남보다 앞서 使用하고 있는 筆者이고 보면, 現實과의 이런 乖離은 참기가 힘들다.

學生數 2萬 5,000名의 大學에  
Fax는 단 한대

사실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 筆者가 소속되어 있는 高麗大부터가 그렇다. 公式的으로는 Fax가 단 한 대 뿐이니 말이다. 公式的이란 뜻은 學校가 學校費用으로 學校의 公用으로 쓰고 있는 Fax란 뜻이다. 그 팩시에는 事務員이 한 사람 달려 있어 使用時마다 文書 1장당 20원씩 料金を 받고 있다. 일일이 使用申請書를 記載해야 하고, 課長의 圖章도 찍게 되어있다. 또 使用張簿에도 일일이 적어 넣어두는가 보다. 생각해 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Fax는 電話機와 똑같은 감각의 것인데 왜 일일이 돈도내고 帳簿에 적어놓아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Fax는 市內의 경우라면 3분까지는 市內電話料金인 25원(稅包含)만 물면 되는데 왜 枚當 20원씩 요금을 받는지 알 수가 없다. 3분이려면 180秒이므로 한 장 보내는데 15秒씩이라도 12매는 보낼 수 있는데도 말이다.

또 Fax를 관리하기 위해 事務員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人件費는 年間 적어도 800만원은 必要하다. (Bonus 800%) 그 800만원이면 60萬원 水準의 Fax를 13대는 살 수가 있다.

더 놀라운 일은 筆者가 所屬되어 있는 理工大에서 本校까지는 약 1km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Fax로 文書한장 보내는데 1km를 往復해야 하니 時間浪費가 이만 저만 아니다. 그래서 몇차례 理工大에도 한대 사달라고 要請했으나 2年이 지나도 馬耳東風이다. 그래서 참다 못해 옆에 있는 姜教授와 協力해서 個人用을 한대 샀다. 아마 우리 말고도 몇몇 教授, 그리고 所屬

研究所에서도 公的이 아니라 私的으로 사서 쓰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든 2萬 5,000名의 學生을 갖는 大高大에 Fax가 단 한 대라니 창피하기 짝이 없다. 實은 그 高大도 한 때는 公式的으로는 서울大보다도 앞서서 Fax를 산 것이라고 當局者의 한 사람은 자못 자랑스런 얼굴이다. 꼭 호랑이 담배 피우는 時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다.

### 네안데르탈 舊人時代를 연상시키는 일들

물론 옛날 電話機나 電話使用料가 비쌌고, 또 電話機 놓기가 무척 힘들었던 時代에는 大學에 단 한 대만의 電話機가 있었다해도 크게 창피스럽지는 않았었다. 사실 그 時代만 해도 電話한 통화 하는데도 서무과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나 電話機가 각 教授의 연구실마다 한대씩, 그것도 固有番號로 장만되고 있는 이 時代에 유독 팩시밀리만은 사용료를 일일이 물어야 하고, 形式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담당課長의 도장까지 말아야 한다니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그 팩시밀리의 관리를 위해 職員이 한 사람 配定되어 있다면, 經費面에서도 크나큰 낭비일 것이다. 왜 생각을 확대시켜서 각교수마다 한대씩의 Fax 配定은甚하다 치더라도, 各學科마다 한대씩 정도는 설치해줄 수 없는지? 그렇다고 使用料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닐 터인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Fax 使用料金は 電話使用料金과 完全히 같으니 말이다. 다만 受信의 用紙代만은 追加로 必要하겠지만, 그 用紙代라야 얼마 하겠는가 말이다.

實은 이 이야기는 單純히 高麗대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거의 모든 大學이나 研究所 또는 企業體마저도 Fax에 對해 靚한 誤解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몇 달餘前엔가 韓國에서도 내놓라 하는 資本金 100億원 水準의 某電子會社엘 갔더니 Fax는 단 3 대라는데 깜짝 놀

란 일이 있었다. 輸出高만 해도 1億弗이 넘는다는 그 커다란 會社가 단 3 대의 Fax를 갖고 어떻게 外國과의 円滑한 情報交換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 3 대만의 Fax이기에, 外部서 受信된 文書를 일일이 사환을 시켜 15層이니 12層이니 등등 受信處가 있는 課나 部를 찾아 人便으로 보내는 光景을 그려보니 꼭 네안데르탈 舊人(약 14萬年前後부터 4萬年前까지 山人類의 祖上)들이 살았던 舊石器時代 생각이 난다.

### OA의 中核으로서의 팩시밀리

그 팩시밀리는 실은 1843년에 스코틀랜드의 Alexander Bain에 의해 發明되어 있다. 그러나 電話의 發明인 1876年보다 33年이나 더 앞서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技術的 難關에 부딪쳐 오랫동안 實用化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가, 最近에 들어서서야 大量普及이 시작된 것이다.

즉 1979년에 開發된 64K 級의 各種 VLSI (Very 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의 大量生産에 힘입어 값싼 Fax가 나돌자 OA (事務自動) 機器의 하나로서 크게 注目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결과 現在 팩시밀리는 北美地域(美國 및 캐나다)에 400萬대, 日本에 380萬대, 유럽에 340萬대나 普及되어 있고, 今年 들어서는 더 많은 팩시가 普及될 豫정에 있다.

그 팩시밀리(facsimile)는 쉽게 말해 文字·圖形·寫眞 등을 電氣信號로 바꾸어 電話回線을 利用하여 멀리까지 電送한 후, 原本과 完全히 淸은 狀態로 復原시켜주는 通信裝置를 뜻한다. 그래서 寫眞電送·寫眞電信·模寫電送 등이라 불리고 있다.

좀더 쉽게 말하면 電話回線을 써서 멀리 떨어져 있는 場所까지 任意文書나 圖形을 보내줄 수 있는 遠隔複寫機·또는 電子式의 超高速速達郵便機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電送速度는 國際電信電話諮問委員會(CCITT)에 의해

G 1 (Group 1) A 4 判 原稿 6 分 以內

G 2 (Group 2) A 4 判 原稿 3 分 以內

G 3 (Group 3) A 4 判 原稿 1 分 以內

G 4 (Group 4) A 4 判 3 秒前後 原稿 또는 以內로 分類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現在 普及되고 있는 것은 大部分이 G 3 이다.

### 普及率은 日本이 으뜸

그 팩시밀리의 最先進國은 日本이다. 歐美諸國과 달라 漢字文化圈에 속하는 日本서는 鍵盤을 쓰는 타이프라이터나 텔렉스(telex), 個人用 컴퓨터(PC) 등은 아무래도 使用時 拒否感(ale-rgy)를 받는다. 이에 반해서 팩시밀리는 漢字나 한글은 물론이려니와 흘려쓴 肉筆의 文字건 設計圖건 또는 插畫이건 있는 그대로를 단추 하나로 複寫해서 보내 주기 때문에 鍵盤알러지(key-board alergy)는 全然 받지 않아도 되어 生理的으로 漢字文化圈 사람에게 꼭 들어맞는다.

그런 意味에서는 같은 漢字文化圈에 속하는 우리 한국서도 事情은 매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때가 오면 日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親近感이 나는 情報媒體, OA機器로서 받아들여지리라 생각된다.

### 低廉化로 치달리는 경쟁

그 팩시가 昨年以來 急 피치로 普及率이 늘어나고 있다. 그 理由는 값의 低廉化에 있다. 이미 69萬원 水準의 것이 나돌고 있고 今年初에는 50萬대 水準의 것도 곧 선을 보일것 같다. 물론 조금만 더 값이 낮아져 30萬원代만 된다면 普及은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日本에서와 같이 各 家庭에서도 한대씩 팩시를 구입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그 팩시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된다면, 집에서

손님이 왔을 때 「짜장면」이나 「냉면」 配達도 Fax로 注文할 수가 있다. 電話로 짜장면이나 냉면을 시켜 먹는것과 꼭 같은 感覺이다. 그 뿐이러 實은 電話注文보다도 몇 배나 더 長點이 있다.

- 즉
- (1) “냉면 5 그릇을 1時30分까지 배달”해 달라는 등 數量이나 時刻을 明確히 써 놓음으로서 不必要한 말다툼을 미연에 피할 수가 있다. 예컨데 “왜 냉면 5 그릇을 1時30分까지 배달해 달라 했는데 4 그릇만 가져왔지? 왜 時間이 20分이나 늦었지?” “아니요, 틀림없이 냉면 4 그릇은 가져오라 했습니다” 등등 電話注文때라면 증거가 없어 계속 말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Fax의 경우는 送信者나 受信者가 文書를 갖고 있어 結판이 곧 난다.
  - (2) Fax의 경우는 地圖까지도 그러서 보낼 수가 있다.
  - (3) 電話注文이라면 相對方이 바빠서 電話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Fax는 不在中에도 보낼 수가 있다.
- 등등이다.

물론 짜장면이나 냉면뿐 만 아니라 아파트團地에서라면 슈퍼마켓에 日用雜貨品이나 食料品 配達을 Fax로 注文할 수도 있고, 또 學生들이나 家庭主婦는 Fax로 멀리 있는 친구들과 便紙를 주고 받을수도 있다. 그것도 超高速으로 1分以內에 웬만한 길이의 便紙를 보낼 수가 있다. 물론 美國이나 유럽 등 멀리 旅行길에 있는 家族과 수시로 超高速으로 편지를 주고 받을 수가 있다. 왜냐 하면 歐美各國이나 日本·東南亞地方 등 世界 어느 나라에서나 호텔치고 Fax가 없는 곳은 없으니 말이다.

### 多方面으로의 進出

그 Fax는 팩시밀리 메일(Facsimile Mail) 시스템을 사용하므로서 精報流通 手段으로도 쓰

일 수가 있다.

예컨대 株價情報·教育情報·畜産物情報·農産物情報 등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PC (個人用컴퓨터)와 연결시키면, 그 同報機能을 利用해서 數十 數百 (때로는 數千) 곳에 단추 하나로 同時에 同一內容의 文書를 (相對方의 在·不在의 關係없이)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企業體는 물론이러니와 學館·代理店을 갖는 生產業體, 結婚相談所 등에서도 利用이 可能하고, 同窓會모임에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Fax 製造業體가 Fax 의

便利性을 PR 할 必要가 있다. 예컨대 茶房·文房具·수퍼마켓은 물론이러니와 禮式場, 버스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超高速達우편기로서의 實力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 會社에서는 1社 1臺나 層別 1臺가 아니라 1課 1臺, 1冊床 1臺 등등 細分된 部門別 設置가 얼마나 事務의 能率을 올려주는가를 具體的으로 보여 줄 必要가 있다.

어쨌든 그리하여 1990年代는 Fax 全盛時代가 될 것 같고, 또 努力해서 Fax 全盛時代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